

## TPB를 적용한 공정관광(Fair Tourism) 행동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ir Tourism Behavioral Model Us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 태 숙\*\* · 김 철 원\*\*\*

Lee, Tae-Sook · Kim, Chul-Won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공정관광 행동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Ajzen & Fishbein(1980)에 의해 개발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적용하여 공정관광 행동 구조를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공정관광 인식(경제적 측면 인식, 자연적 측면 인식, 사회적 측면 인식)을 도출하여, 범주화된 공정관광 인식 항목과 계획행동이론의 주요 변수들(태도, 지각된 행동조절, 주관적 규범, 공정관광에 대한 행동의도 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획행동이론에 대한 공정관광 행동 구조의 적용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규범적 공정관광 연구에서 구체화된 공정관광 영역으로 접근함으로써 학술적 의미를 가지며, 또한 공정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가진다.

**핵심용어** : 공정관광,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

**ABSTRACT** : This research sought to investigate the tourism behavioral structure of fair tourism participants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developed and planned by Ajzen & Fishbein(1980)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ssence of fair tourism behavior. The fair tourism awareness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was classified into 'economic based awareness, nature based awareness, and social based awareness.' A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main variables(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ubjective regulations, and behavioral intent on fair tourism etc.) of planned behavioral theory and classified fair tourism awareness categories. The result and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behavioral structure of fair tourism regarding planned behavioral theory was confirmed. As a result, this research has academic meaning by approaching through a concrete fair tourism sector instead of the existing normative fair tourism research, and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prepared a basis for systematic understanding on fair tourism.

**Key words** : Fair tourism, Theory of reasoned ac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3S1A5A2A01019940)

\*\* 순천제일대학교 호텔관광과 교수. e-mail: tsvi1010@hanmail.net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e-mail: kimew@khu.ac.kr

## I. 서 론

그 동안의 관광은 지역의 사회·문화·경제적 기여 명분으로 개발도상국이나 낙후 지역의 발전 모델로써 당위성을 인정받아 왔고, 지역사회 인프라 및 여가시설 개선, 지역의 수입증대 및 고용창출 확대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불건전한 주민의식 유발, 경제적 불균형 등으로 관광에 대한 부정적 견해(김사현, 2009; 이영진·송영민·윤지환, 2012)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기는 대안 관광이나 지속가능한 관광 등의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하였으며(Diana & Sargent, 2000), 이에 세계관광기구(UNWTO)는 1993년 지속가능한 관광을 미래의 관광형태로 채택하고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찾고자 노력을 꾀하였다(송재호, 2003; 황희정·이훈, 2011). 이러한 여건하에 공정관광은 1999년 칠레 산티아고의 제13차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촌 관광윤리 강령'을 모태로 제시되었다. 아직 국내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지만 국외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대량관광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Cleverdon & Kalisch, 2000; Mvula, 2001; Mahony, 2007, 재인용). 이후 윤리적 소비행태가 여행부문에까지 확산되면서(Goodwin & Francis, 2003) 뚜렷한 시장 트렌드로 이어졌으며, 국내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상적 사회에 대한 소망으로(정원섭, 2011), 공정한 사회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면서(엄은희, 2010), 마침내 공정관광 움직임이 나타났다. 점진적인 공정관광에 대한 욕구와 관심의 증가세에 비춰볼 때, 공정관광도 관광의 한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관광 수요자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관광행동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광객들이 무엇을 위하여 공

정관광에 참여하며, 또한 공정관광 활동이 어떠한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참여의도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행동 구조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 구조와 함께 공정관광 참가자들의 관광행동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공정관광은 정신적 충족감을 채워주는 속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속성들이 있기에 일반 관광활동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러한 공정관광 속성 규명을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공정관광의 행동본질 파악을 위해 Ajzen and Fishbein(1980)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적용하고자 한다. TPB에 의하면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조절, 행동의도,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인식과 같은 심리적 개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TPB는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제시해 줌으로서 인간행동의 의사결정 과정을 인지심리적 접근을 통하여 설명한다(Han, Hsu, & Sheu, 2010). 따라서 TPB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으로서 공정관광 행동 구조 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간주되어 본 연구에서의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과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조절, 행동의도간의 영향관계를 TPB 이론을 적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정관광객의 심리 반응 및 행동 차원에 소구하는 시사점 도출을 그 목표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정관광 개념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공정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관광분야에서도 윤리적 관광소비와 공정한 관광거래를 통한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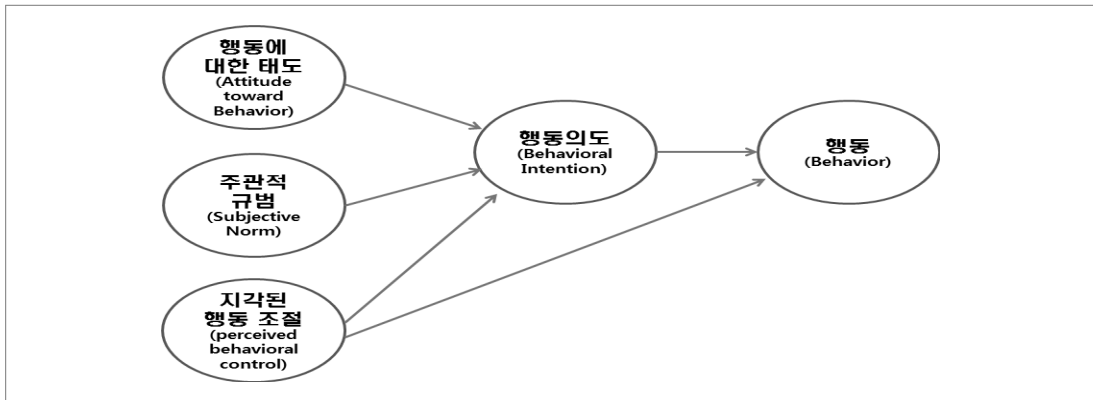
행동에서 윤리적 소비의 실천에 해당하는 공정관광은 무형의 특성을 지닌 관광이 재화 거래에서와 같이 공정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제기되었지만(조명환·정선자, 2012; Mahony, 2007), 국내·외적으로 관광현상의 지속가능성 논의와 맞물리면서 공정관광에 대한 논의(박미혜, 2010; 임영신, 2009; 황희정·이훈, 2011)는 시작되었다. 공정관광은 그 개념과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Cleverdon & Kalisch, 2000), 대체적으로 소비가 아닌 관계(임영신·이혜영, 2009; 장은경·이진형, 2010), 공정무역 개념에 대한 관광산업 적용(김소윤, 2010), 관광분야의 공정한 거래(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등의 측면으로 정의되고 있다(황희정·이훈, 2011). 공정관광은 공평하고 올바른 의미를 가지는 공정과 여행이 만나면서 그동안의 관광산업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여행문화를 지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윤리적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과 밀접하게 관련됨으로서 지역공동체 관광, 책임관광, 생태관광 등의 형태를 갖는다(Weeden, 2001).

세계 여행전문 발간지 론니플레닛(Lonely planet)에 의하면 공정관광은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지주민과 환경의 연결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환경, 사회·문화, 경제의 3가지 이슈를 고려한 관광으로 정의되어진다. 환경 측면은 부정적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야생동식물, 자연, 문화유산 보존에 긍정적 기여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문화적 측면은 문화 및 전통을 존중하고, 여행자와 현지 주민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교류 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적 측면은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고, 현지 주민사회에 금전적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을 의미한다(Lonely Planet Publication, 2008). 이 외에도 공정관광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과 사람을 파괴하는 여행이 아닌,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배우고, 나누고, 내가 성장하는 여행

태도와 여행 방식이라 할 수 있다(황희정·이훈, 2011). 이처럼 공정관광은 여행지와 현지인을 더욱 고려하는 진정한 여행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며, 모든 지역에 여행이 미치는 이익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하려는 의미가 담겨진다(박미혜, 2010; Corkhill, 2007). 공정관광이 공정성에 기반하여 관광분야의 불공정성, 사회적 배제 및 관광소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그 역할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개념 정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관광이 지니는 공정성에 대한 의미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이 일부 연구들에 의해 지적되는 실정이다.

## 2. 계획행동이론 개념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관심을 받게 된 태도-행동간 관계 분석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다(Han, 2015). 그중 특히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대표 모델로 꼽힌다. 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행동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Pavlou & Fygenon, 2006). 이는 행동의도가 행동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이라는 것이며, 행동의도가 강할수록 행동이 이루어질 확률도 높음을 나타낸다(Ajzen, 1991). 그러나 개인 행동의 상당 부분은 TRA의 2가지 예측 변인만으로는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jzen(1985)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각된 행동 조절(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을 추가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조절이 행동의도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 지각된 행동 조절 도입을 통해



〈그림 1〉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모형

계획행동이론은 외부 영향력이 존재하는 보다 실제적 상황에서의 인간행동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계획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보다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 의학/간호학/보건학, 경영/경제학, 광고/커뮤니케이션학, 체육/운동/스포츠, 심리학뿐만 아니라 관광학에서도 여행자들의 관광의도와 관광행동 영향 규명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Hsu & Huang, 2012).

한편, Ajzen(1991)은 만일 여타 요인들이 계획행동이론 모형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면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이나 계획행동이론에 수정을 가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을 추가로 도입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어 왔으며,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TPB모형에 속한 변인 이외의 변인들을 도입하여 TPB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고 있다(Hagger & Chatzisarantis, 2005; Han & Kim, 2010; Quintal, Lee, & Soutar, 2010). 또한 근래에는 기존의 계획행동이론보다 예측하고자 하는 행동에 영향력이 큰 요인을 추가하여 선행변수들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확장된 형태의 계획행동이론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김진옥·김남조, 2013; Han, Lee, & Lee, 2011; Phillips,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여행에 대한

인식을 계획행동이론에 추가변수로 적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계획행동이론은 완전히 자발적인 통제 아래에 있지 않은 의사결정에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데(Cheng, Lam & Hsu, 2005), 공정관광 인식을 추가한 계획행동이론의 행동 예측 논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관광 분야에서의 공정관광 선행연구 고찰

공정관광에 대한 논의는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비판으로 부터 시작되었다(이영진 등, 2012 재인용; Cleverdon & Kalisch, 2000; Mvula, 2001).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관광의 문제점 제기(Zhang, Heung, & Yan, 2009)나 관광에서의 공정성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Cravatte & Chabloy, 2008).

세부적으로 연구흐름을 살펴보면, 국외 연구들은 대체로 여행사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행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Payne and Dimanche (1996)는 여행사가 윤리여행을 추구하고 윤리적인 평판을 얻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4가지 영역(여행지 지역사회와 여행사간의 관계, 여행사 종업원의 대우, 여행자에게 여행상품의 마케팅활

동, 자연환경에 대한 여행사의 태도)을 제시하였다. Weeden(2001)은 대다수의 여행사가 윤리적 여행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하고 여행사들의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틈새상품으로 공정여행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박미혜, 2010). Goodwin and Francis(2003)는 윤리적 소비가 여행부문까지 확산되면서 윤리적 여행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증가하였고, 여행을 결정할 때 여행지역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정보의 질, 현지인과 접촉할 기회, 환경적 영향 등도 중요 고려사항임을 도출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관광객의 경험적 토대의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 Caruana, Glozer, Crane and McCabe(2014)는 그동안의 연구들이 관광객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접근한 것을 지적하면서 리스판스블 트레블에 참여한 16명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책임관광 경험을 조사하였다. 책임관광에 대한 관여 정도(높고 낮음)와 목표 지향성(외부 지향/내부 지향)에 따라 4개의 책임관광 맵핑(mapping)을 제시하였으며, 책임관광에 있어서 관여 정도와 목표 지향성의 관계에 대해 논하였다. Grimwood, Yudina, Muldoon and Qiu(2015) 또한 강 카누 사례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시각적 자료에 근거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책임관광의 담론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책임관광 경험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공정관광 개념 및 이론(김소윤, 2010; 이영진 등, 2012; 황희정·이훈, 2011), 관광에서의 공정성 및 윤리의식(장익선, 2006; 오익근, 2011), 공정관광객의 관광행동 분석(박미혜, 2010; 박정하, 2014; 여호근·박봉규·이정은, 2012; 조명환·정선자, 2012), 사례 연구(장은경·이진형, 2010), 특정 관광행태와 공정관광의 연계(백지혜·남영숙, 2012; 이수창·정옥주, 2013), 공정여행의 계량적 가치 평가(임은정·이희찬, 2012), 공정여행의 발전 가

능성(임영신, 2009) 등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영신(2009)은 공정여행의 중요성과 한국에서의 성장가능성, 공정여행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박미혜(2010)는 공정여행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공정여행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공정여행 경험의 의미를 밝혔다. 장은경·이진형(2010)은 공정여행 사례분석(북촌 한옥마을)을 통해 공정여행 개념과 가이드라인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공정여행 참가자들의 특성과 참여 동기를 분석하였으며, 황희정·이훈(2011)은 관광분야 주요 이해 주체를 중심으로 관광객 공정성, 지역주민 공정성, 관광산업 공정성, 그리고 생태적 공정성 등 4개 속성으로 구성하여 각 이해 주체간 동등한 관계, 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관광 편익에 대한 분배 공정성을 중심으로 공정관광을 개념화 하였다. 여호근 등(2012)은 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정관광 인식이 공정관광 태도와 공정관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관광 태도가 공정관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정관광 인식과 공정관광 태도간 부분적인 유의한 영향관계를 도출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박정하(2014)는 개인가치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성취추구형 집단, 자존추구형 집단, 효용추구형 집단 그리고 자기방향 추구형 집단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간의 공정관광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임은정·이희찬(2012)은 조건부 시장가치 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공정여행의 경제적 가치와 그 결정요인을 확인하고,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공정여행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기존의 공정여행 연구가 탐색적인 것을 계량적인 접근을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구시기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개념적, 탐색적 접근에서 행태적, 실증적 연구로 다양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심리학적 의미가 포함된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합의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게 된다.

###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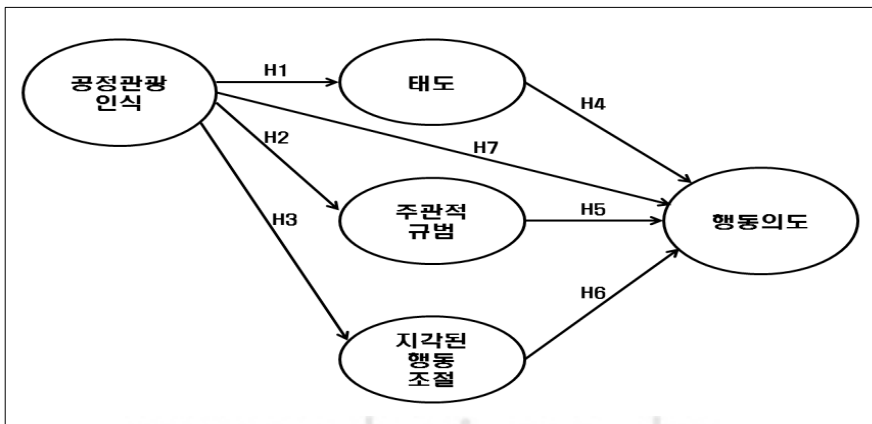
####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공정관광객의 행동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공정관광 인식이 포함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2).

본 연구는 크게 2가지 관점으로 분석한다. 공정관광의 행동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 속성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관광과 계획행동모형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공정관광 속성은 다면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심층적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렇게 도출된 공정관광 인식을 계획행동이론의 선행변수로 구성하고자 한다.

행동의도를 결정짓는 3개의 선행 변수 외에 새로운 변수들을 포함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행동이론보다 행동의도를 예측하는데 더 우수한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정희진·이계희(2010)는 신념을, Han and Kim(2010)은 과거경험, 이미지 및 소비자 만족을, 김홍렬·이태희·윤설민(2010)은 즐거움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근거로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을 추가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계획행동모형은 다양한 분야에서 행동의도에 높은 예측력을 보여 그 실효성이 입증된 모형이다(Ajzen, 1991; Cheng, Lam, & Hsu, 2006; Sparks, 2007). 최근에는 관광행동에도 적용되어 높은 설명력과 예측력을 입증하고 있어 본 연구의 공정관광 인식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김홍렬 등, 2010; 정희진·이계희, 2010; Han, Hsu, & Sheu, 2010; Hsu & Huang, 2012; Han & Kim, 2010; Lam & Hsu, 2006)에 근거하여 이들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 가설 1: 공정관광 인식은 공정관광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공정관광 인식은 공정관광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공정관광 인식은 공정관광 지각된 행동조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공정관광 태도는 공정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공정관광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공정관광에 대한 지각된 행동조절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7: 공정관광 인식은 공정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조사설계

본 연구는 정성적 조사와 실증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정성적 조사는 관광분야 실무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실증적 조사는 공정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에는 총 10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련 협회,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그 대상이다.

심층인터뷰는 2013년 10월 4일-2013년 11월 22일까지 평균 주 1명씩 진행하였으며, 일부 대상자는 주말에, 또 다른 대상자는 주중에 진행

하였고, 장소는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대상자 섭외 시 연구목적 및 취지를 충분히 알린 다음 면접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로부터 동의가 구해진 경우 녹취를 하였고, 녹취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다. 인터뷰 시, 질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주도하는 대로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의견을 끝까지 충분히 청취한 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탐색질문을 통한 보완으로 자료 누락을 최소화 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면접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1회당 30분 내외로 진행하였다. 개인별로 편차가 있었으며, 인터뷰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메모 및 녹취 내용의 전사작업(transcribing)을 거쳐 문서로 전환한 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자료 수집을 중단할 때의 판단 기준은 이론적 포화(saturation)를 적용하였다. 이론적 포화는 연구자가 면담을 통하여 관련 요인으로 발전시킬 자료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시점이며 비슷한 경우가 반복되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때이다(Glaser & Strauss, 1967).

인터뷰에서 질문의 순서와 내용은 Patton (1980)의 지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Patton

〈표 1〉 심층 인터뷰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소속사	연수	구분	성별	소속사	연수
P1	남	공정여행 관광 업체	7년	P6	여	협동조합 관계자	4년
P2	남	공정여행 관광 업체	12년	P7	남	담당 공무원	16년
P3	남	한국관광공사 CSR 팀	20년	P8	남	협회 관계자	12년
P4	남	지방관광공사 전담자	16년	P9	여	학계	17년
P5	남	협동조합 관계자	3년	P10	여	학계	15년

- 1) 지방관광공사의 전담자는 관광상품 담당자로서 그 지역의 공정관광 상품을 업무 영역에 포함하고 있는 자이며, 협동조합 마찬가지로 지역에서의 공정관광 상품을 기획 또는 담당하는 관계자임. 학계의 경우 공정관광에 대한 연구 경험자이며, 담당 공무원 또한 해당 지자체의 관광부서에서 공정관광 상품을 업무 영역에 포함하고 있는 자임

〈표 2〉 설문 변수 도출에 대한 개요

구분	조사방법	근거
공정관광 인식 속성	정성적 조사	심층면접으로 속성 차원 도출
계획행동 이론	태도(7문항), 주관적 규범(6문항), 지각된 행동 조절(4문항), 행동의도(6문항)	Ajzen(2002), Lam & Hsu(2006), Han, Hsu, & Sheu(2010), Shih & Fang(2004), Sparks & Pan(2009), 김홍렬·이태희·윤설민(2010), 허향진·김태구(2008)
인구통계적 변수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 학력	
공정관광 특성	공정관광 참가 형태, 공정관광 참가 경험, 동반자 형태	

(1980)은 질적연구방법을 수행하는 목적 중 하나로써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고, 어떠한 반응이라도 취하여 참석자들의 유용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질문은 중립적인 것이어야 하며, 대부분 개방형 질문이 되어야 하고 참석자들이 그들의 고유한 언어와 의미의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두어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 견해와 감정들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내용을 먼저 질문한 후 구체적이고 특수한 내용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 이외에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핵심 주제와 항목들은 그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연구자의 상호검증(peer debriefing)과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 평가(member check) 방법이 활용되었다(Lincoln & Guba, 1985).<sup>2)</sup>

설문조사는 공정관광을 경험한 공정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표집 방법의 일환인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표본추출이 용이한 공정관광 목적지를 방문하였다. 2014년 2월 15일- 4월 20일까지 매주 주말 및 휴일에 국내 공정관광 목적지로서 인지도가 높은 청산도와 지리산 둘레길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무조건적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관광 상품 참가 경험을 확인한 뒤, 이들에 한해 선별 진행하였다. 선별된 관광객들 중에서도 설문참여에 호응을 한 사람들에게 한해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 요원이 설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설문항목 구성은 〈표 2〉와 같으며, 응답 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Scale에 의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분석에 사용된 통계분석 기법은 빈도분석과 신뢰성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다.

## IV. 분석결과

### 1. 질적자료 분석 결과

녹취된 자료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면접자가 언급한 내용을 목록형태로 기록하였으며 2회 반복하였다. 표현상으로 다르게 표현되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묶이거나, 유사한 언어로 표현되지만 다른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애매한 사항들은 반복 청취하여 응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개

2) 인터뷰 자료에 대해 동료 연구자와 내용 분류, 핵심 단어 연합 등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 검토과정, 즉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 평가(member check) 과정을 거쳤으며(분석과정에서 불일치되는 요소들은 일치점에 도달할 때까지 적절한 자료와 핵심단어를 재검토하고 연합함으로써 해결), 이처럼 주요한 의미를 찾고 추출하는 분석과정은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 즉 동료연구자의 상호검증(peer debriefing)에 의해 진행되었음.



〈표 3〉 정성적 조사 결과

범주화된 내용		차원		
- 유명한 호텔보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나 음식점을 이용 - 전문 가이드 보다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하여 적절한 임금을 보상 - 현지인이 운영하는 지역의 교통수단을 이용 - 현지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이용 - 수입품보다 현지 생산품을 구매하고 재래시장, 특산물 판매처 등을 이용 - 적절한 가격의 현지물건을 지나치게 깎지 않음		경제적 측면		
	- 여행하는 동안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통수단(비행기 보다는 기차, 버스, 배 등 이용)을 이용 -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보 및 자전거 등을 이용 - 관광지의 물과 전기 사용 등을 최소화 - 내복 등 충분한 숙을을 준비하여 에너지를 절약 - 식사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 세면도구 준비를 통해 일회용품과 화학세제, 폐기물 사용을 최소화		환경적 측면	
		- 관광지 방문 전 기본적인 언어와 최소한의 정보를 습득 - 지역의 음식을 맛보거나 전통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 - 현지 주민과의 교류 및 친근한 관계를 맺는 행사에 참여 - 생활방식, 종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 - 관광지에서 만난 사람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함 - 인물 사진 촬영 전에는 반드시 허락을 구하고 촬영		사회적 측면

념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질문 내용에 따라 유사한 단어와 문장을 분류하고, 참여자 의견의 빈도 및 강도를 고려하여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크게 '경제적 측면 차원, 환경적 측면 차원, 사회적 측면 차원'으로 범주화되었으며, 이를 설문지로 구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

## 2. 실증조사 분석결과

### 1) 인구통계적 특성

본 설문조사 결과 총 28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설문 29부를 제외한 251부의 설문은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되었고, 구체적인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응답자들의 거주지가 서울, 전라, 경상도 지역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청산도와 지리산이 전남에 위치해 있지만, 외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 성		빈도(명)	구성비(%)	특 성		빈도(명)	구성비(%)
성별	남 성	89	35.5	학력	고 졸	7	2.8
	여 성	157	62.5		대학재학/졸	170	67.7
소득	100만원 미만	12	4.8	연령	대학원 재학/졸	67	26.7
	100-200만원 미만	52	20.7		20대	55	21.9
	200-300만원 미만	45	17.9		30대	82	32.7
	300-400만원 미만	35	13.9		40대	64	25.5
	400-500만원 미만	32	12.7		50대	43	17.1
	500만원 이상	61	24.3		60대 이상	4	1.6
직업	사무/관리직	68	27.1	거주지	서울	84	33.5
	자영업	12	4.8		인천	3	1.2
	서비스업	49	19.5		경기	18	7.2
	공무원	9	3.6		전라	47	18.7
	전문직	45	17.9		경상	47	18.7

학생	17	6.8	제주	1	.4
주부	22	8.8	대구	14	5.6
농/임/어/축업	2	.8	부산	32	12.7
무직	4	1.6	울산	1	.4
기타	13	5.2	-	-	-

결측치 제외

지인들의 방문 비율이 높은 곳으로 이러한 현상이 본 설문에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

###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전체항목의 신뢰도는 0.868로 나타나 본 연구를 위해 설계된 설문문항의 신뢰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측정변수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정관광 인식 14개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1개의 변수(1a\_6 '적절한 가격의 현지 물건을 지나치게 깎지 않음으로서 현지인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가 요인적재량의 기준치(0.5미만)를 충족하지 못하여 제거되었고, 이들을 제외한 13개의 변수로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KMO값이

0.856으로 나타났으며,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1은 '사회/문화적 인식', 요인2는 '경제적 인식'으로 요인3은 '자연/환경적 인식'으로 명명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공정관광 인식, 지각된 행동조절, 주관적 규범, 태도, 행동의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상관치가 0.4 이상의 값을 보이면 잠재변수가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를 확인한 결과 0.4이하를 나타내는 항목 5개(1c\_1, 1c\_3, 1a\_3, 1a\_2, 2\_1)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제거한 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구체적인 각 지수들은 <표 6>에 제시하였다.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분산

<표 5> 공정관광 인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항목	a	b	c	d	e
요인 1 (사회/ 문화적)	1c_2 지역의 전통음식을 맛보거나 전통문화를 이해	.789			.725	
	1c_5 관광지에서 만난 사람과 소통하고 배려	.783			.648	
	1c_4 생활방식, 종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춤	.780	2.989	22.994	.628	.811
	1c_1 관광지 방문 전 기본적인 언어와 최소한의 정보 습득	.657			.511	
	1c_3 현지 주민과의 교류 및 지역민과 친근한 관계를 맺는 행사에 참여	.621			.450	
요인 2 (경제적)	1a_5 수입품보다 현지 생산품을 구매하고 재래시장, 특산물 판매처 등을 이용	.751			.660	
	1a_1 유명한 호텔보다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숙소나 음식점을 이용	.742	2.743	21.096	.608	.802
	1a_4 현지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이용	.709			.620	
	1a_3 현지인이 운영하는 지역의 교통수단을 이용	.655			.621	
요인 3 (자연/ 환경적)	1a_2 전문 가이드 보다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하여 적절한 임금을 보상	.653			.542	
	1b_1 내복 등 충분한 속옷을 준비하여 에너지를 절약	.866			.778	
	1b_2 식사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815	2.407	18.519	.722	.812
	1b_3 세면도구 준비를 통해 일회용품과 화학세제, 폐기물 사용을 최소화	.724			.625	

주 : a: 요인적재량, b: 아이겐값, c: 분산 설명력, d: 커뮤니티, e: 신뢰도

〈표 6〉 공정관광, 지각된 행동조절, 주관적 규범, 태도, 행동의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항 목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 R.(t값)	P	AVE <sup>a</sup>	개념신뢰도 <sup>b</sup>
F1 경제적	@1a_4	.775				0.684	0.865
	@1a_5	.769	.100	10.280	***		
	@1a_1	.604	.108	8.551	***		
F2 사회적	@1c_5	.697				0.739	0.894
	@1c_2	.802	.109	10.397	***		
	@1c_4	.761	.110	10.099	***		
F3 환경적	@1b_3	.808				0.666	0.857
	@1b_1	.752	.090	11.293	***		
	@1b_2	.754	.073	11.319	***		
주관적 규범	@3_1	.731				0.700	0.933
	@3_2	.769	.082	12.003	***		
	@3_3	.730	.100	11.358	***		
	@3_6	.708	.085	11.011	***		
	@3_4	.874	.085	13.704	***		
지각된 행동 조절	@3_5	.852	.080	13.356	***	0.648	0.846
	@2_3	.847					
	@2_2	.796	.065	12.495	***		
태도	@2_4	.661	.070	10.434	***	0.750	0.954
	@5_4	.786					
	@5_3	.858	.065	15.181	***		
	@5_2	.843	.064	14.821	***		
	@5_1	.657	.071	10.891	***		
	@5_5	.802	.076	13.910	***		
	@5_6	.816	.068	14.207	***		
@5_7	.645	.083	10.649	***			
행동의도	@6_4	.810				0.762	0.950
	@6_3	.886	.061	16.849	***		
	@6_2	.887	.067	16.879	***		
	@6_1	.813	.072	14.866	***		
	@6_5	.738	.069	13.033	***		
@6_6	.756	.065	13.448	***			

Chi-square=779.458, df=413, P=.000, CMIN/DF=1.887  
 GFI=.833, AGFI=.800, RMR=.036, NFI=.850, IFI Delta2=.924, CFI=.923

〈표 7〉 판별타당성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a	b	c	d	e	f	g	$\sqrt{AVE}$
a	1							0.859
b	.625**	1						0.827
c	.553**	.479**	1					0.816
d	.234**	.173**	.208*	1				0.804
e	.321**	.195**	.450**	.569**	1			0.836
f	.544**	.529**	.440**	.372**	.437**	1		0.866
g	.304**	.363**	.328**	.610**	.564**	.612**	1	0.872

주 : a=사회/문화적, b=경제적, c=자연/환경적, d=지각된 행동조절, e=주관적 규범, f=태도, g=행동의도  
 \*\*p<0.01. N=281

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를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요인들이 집중-수렴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개념타당성인 판별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인내의 항목간의 상관분석과 각 요인간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평균분산추출의 계급은 모든 요인에서 변수들의 상관관계 계수를 상회하고 있어 판별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측정 개념들의 관계는 모두 정(+)의 방향으로 연구가설에서 설정한 관계와 일치하고 있어 기준타당성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0.4이하를 나타내는 다중상관치 항목이 2개(5\_7, 1a\_1)로 확인되어 이들을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카이제곱은 732.8250, 자유도는 359, 통계량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자유도의 값은 2.041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적합도 지수는 GFI .833, AGFI .798, RMR .063, NFI .85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합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적 모형 기준치에

약간 미흡한 지수로 보여진다. 이에 좀 더 보완적인 차원에서 CFI와 Delta2 IFI의 적합도를 확인해 보았으며, 그 결과 CFI는 .917, Delta2 IFI가 .917로 나타나 이 지수에서는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수에 의해 모형의 적합함을 확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각 지수들은 <표 8>에 제시하였다.

요인별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공정관광 인식과 태도간의 관계에서는 공정관광 인식 모두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주관적 규범과의 관계에서는 자연/환경적 인식과 사회/문화적 인식만이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인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각된 행동조절과의 관계에서는 사회/문화적 인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도간의 관계에서는 모든 인식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관광 선행연구(여호근 등, 2012; 정선자, 2011)와 약간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정선자(2011)는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이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으며, 여호근 등(2012)은 공정관광 인식이 태도

<표 8> 모형 검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C. R. (t-value)	p
H1	경제적 인식 → 태도	.231	.210	.105	2.194	.028
	자연/환경적 인식 → 태도	.143	.175	.066	2.164	.030
	사회/문화적 인식 → 태도	.415	.346	.123	3.369	***
H2	경제적 인식 → 주관적 규범	-.205	-.177	.122	-1.684	.092
	자연/환경적 인식 → 주관적 규범	.366	.425	.081	4.514	***
	사회/문화적 인식 → 주관적 규범	.313	.248	.139	2.256	.024
H3	경제적 인식 → 지각된 행동조절	-.158	-.097	.186	-.849	.396
	자연/환경적 인식 → 지각된 행동조절	.205	.170	.118	1.738	.082
	사회/문화적 인식 → 지각된 행동조절	.431	.244	.214	2.012	.044
H4	지각된 행동조절 → 행동의도	.281	.390	.047	5.999	***
H5	주관적 규범 → 행동의도	.302	.299	.069	4.346	***
H6	태도 → 행동의도	.444	.418	.082	5.430	***
H7	경제적 인식 → 행동의도	.195	.166	.109	1.785	.074
	자연/환경적 인식 → 행동의도	-.025	-.029	.072	-.345	.730
	사회/문화적 인식 → 행동의도	-.233	-.183	.130	-1.790	.073

에 부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공정관광에 대한 지각된 행동조절과 주관적 규범, 태도는 모두 공정관광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행동조절과 행동의도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an and Kim (2010)은 지각된 행동조절과 그린호텔 이용의도간의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김우곤·이계희(2011)도 푸켓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행동조절과 방문의도간의 정(+ )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논의가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임이 확인되었다. Ajzen(1991)은 지각된 행동조절을 행동수행이 얼마나 어렵고 쉬운 것 인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며 기술, 능력과 같은 개인의 내부적인 요인과 시간, 기회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정관광에 대한 지각된 통제, 즉 참여기회 확대, 참여 접근성 제고, 참여 자신감 부여 등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정관광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홍렬 등(2010)은 주관적 규범과 테마파크 방문의도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재석·이충기(2010)도 주관적 규범과 스키리조트 방문의도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주관적 규범은 어떤 행동을 수행할 때 준거집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정의 정도로서 (Ajzen, 1991), 공정관광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변에서 공정여행 참여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신념은 공정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정관광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의 지지는 행동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된다(최자영·김경자, 2003).

한편, 계획행동이론에서 태도의 개념은 일반

적 의미의 태도보다 구체화되기 때문에 공정관광에서의 태도는 유익한 활동, 가치있는 경험, 올바른 활동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공정관광에 대한 태도가 공정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임이 확인된다. 한편, 경제적 인식은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조절, 행동의도에 대해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자연환경적, 사회문화적 인식 또한 행동의도에 대해 부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공정관광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뚜렷한 관광행태라 불편하지만 정신적 충족감에 만족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 또 불편함의 정도를 받아들이는 범위에 따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의 비교 논의를 시도해 보았지만,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라 여의치가 않았으며, 여호근 등(2012)의 연구에서는 공정관광 인식을 환경/주민, 관광객, 관광업체 등의 유형으로 범주화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인식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공정관광객들의 행동구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추후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산되었을 때 이에 대한 검증을 다시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정관광객의 행동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공정관광 인식이 포함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공정관광을 논함에 있어 선행연구 중심의 문헌적 연구만으로 접근하면 공정관광에 내재된 다원적 속성이 배제된 논의가 되고, 공정관광이 지니는 총체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정관광 전문가 대상의 심층인터뷰와 공정관광객 대상의 실증조사를 병행하여 공정관광

행동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학술적 측면에서는, 첫째, 공정관광은 소비가 아닌 관계를 맺는 것에 기반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광활동 형태와는 다른 행동 구조가 나타날 것을 추정하며 계획행동이론을 적용 분석하였다. 그것은 공정관광이 타 관광과 비교했을 때 기존에 누리던 편안함이나 익숙함 대신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고생스럽기 때문에 때로는 공정관광에 참여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정적 지각의 정도가 더 생겨날 수 있음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석결과 기존 관광활동 형태와 별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공정관광 행동에도 계획행동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되어 계획행동이론의 공정관광 행동 구조 파악에 있어서의 적절성이 입증되었다. 둘째 대안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로 공정관광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미흡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조명환·정선자, 2012), 공정관광객 대상의 실증적 논의가 중심인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외 실무적, 정책적 측면에서는 첫째, 공정관광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인식이 경제적 인식보다 태도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관광에 대한 캠페인이나 계몽운동, 사회운동 전개시, 강조해야 할 중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현지의 먹거리나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 측면의 공정관광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둘째, 대개 소비자들이 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는 초과지불에 대한 혜택이 본인에게 직접 돌아오는 경우에 쉽게 이루어지지만 공정관광처럼 혜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참여가 쉽지 않아 직접적인 공정관광 혜택 강조를 통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의 인식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관광의 폐해 및 불공정 거래 등의 사회적 폐해 및 비용을 강조하는 관점의 홍보 전략을 통해 공정관광의 저변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정관광에 참여하는 일부 집단에서 신사회 운동에 참여한다는 문화자본이 풍부한 계층의 성향이 발견된다는 선행연구 주장처럼(김소윤, 2010),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들 집단이 배타적인 관점을 가지며 엘리트주의적 잠재성이 있음을 엿보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공정관광 정착을 위한 각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공정관광 인지도 상승을 위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공정관광 행동의 본질을 살펴봄으로서 그간 개념 정립에 머물러 있던 공정관광에 대한 논의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존의 규범적 관점에서 벗어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 연구로서 체계적인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노정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정시점에서의 단발성 조사, 즉 횡단적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관광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research)의 한계(조배행·최영희·김동희, 2005; Wood, 2005)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인식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관광 또한 참가 인식이 시간이 경과한 후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시간 경과에 따라 부정적 지각의 정도가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공정관광의 행동구조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research)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둘째, 표집(sampling)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 저조로 공정관광객에 대한 표집의 어려움과 특히 공정관광객들은 누구의 방해도 받기

싫어하는 강한 특성이 있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제한된 지역에서의 조사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사회가 2000년도 이전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였다면 최근은 사회공동체의 정의와 행복을 지향하는 목소리가 높다(이영진·이훈, 2013). 이러한 트렌드에 공정관광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이제는 공정관광을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사현(2009). 『국제관광론』. 서울: 백산출판사.
- 김소윤(2010). 신관광 : 공정한 무역으로서의 공정여행. 『한국관광학회 제68차 전북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 33-39), 한국관광학회.
- 김우곤·이계희(2011). 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대한 이해: 관광객의 거주지와 TPB 모델의 결합. 『관광연구』, 26(3), 89-111.
- 김진옥·김남조(2013). 기후변화 인식이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7(6), 11-32
- 김홍렬·이태희·윤실민(201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테마파크방문에 대한 행동의도 연구: 즐거움(playfulness)의 역할 탐색. 『관광연구저널』, 24(2), 5-23.
- 박미혜(2010). 공정여행 경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5), 857-872.
- 박정하(2014). 해외 여행자들의 개인가치에 따른 공정관광 인식 차이 연구: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8(6), 37-52.
- 백지혜·남영숙(2012).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서의 수학여행과 공정여행의 연계를 위한 기초 연구. 『(사)한국환경교육학회 발표논문집』. 한국환경교육학회.
- 송재호(2003). 관광의 지속가능성 이론 구조 모델 개발과 검증. 『관광·레저연구』, 15(2), 23-38.
- 엄은희(2010). 공정무역 생산자의 조직화와 국제적 관계망. 『공간과 사회』, 33, 143-182.
- 오익근(2011). 공정관광으로 가는 정책. 『한국관광정책』, 43, 74-78.
- 여호근·박봉규·이정은(2012). 공정관광 인식과 태도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 부산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8(1), 1-21.
- 이수창·정옥주(2013). 광역 도보관광의 공정관광적 특성에 대한 연구. 『농촌계획』, 19(2), 93-105.
- 이영진·송영민·윤지환(2012). 관광현상에서 공정성에 관한 담론: 관광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4), 35-57.
- 이영진·이훈(2013). 관광현상에서 공정성의 정의론적 논거모색. 『관광연구저널』, 27(4), 27-47.
- 이재석·이충기(201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스키리조트 방문객의 의사결정 연구. 『호텔관광연구』, 12(4), 1-19.
- 임영신(2009). 대안의 여행: 공정여행을 찾아서. 『환경과 생명』, 61, 124-143.
- 임영신·이혜영(2009). 『희망을 여행하라』. 공정여행 가이드북. 소나무.
- 임은정·이희찬(2012). CVM을 이용한 공정여행 가치평가. 『관광연구저널』, 26(3), 251-266.
- 장은경·이진형(2010). 공정여행의 국내사례 복촌한옥마을 공정여행. 『관광연구논총』, 22(2), 27-47.
- 장익선(2006). 관광윤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43, 253-268.
- 정선자(2011). 『관광객의 개인가치가 윤리적 소비가 공정관광 인식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정원섭(2011). 정의론과 공정성의 조건. 『철학과 현실』, 봄호, 22-34.
- 정희진·이계희(2010). 신한류가 일본과 중국관광객들의 한국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행동모형을 근거한 관여의 조절 역할에 대한 탐색. 『관광학연구』, 34(6), 249-270.

- 조명환·정선자(2012). 관광객의 가치와 공정관광 결과지각에 관한 연구: 윤리적 소비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1), 91-114.
- 조배행·최영희·김동희(2005).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지각 차이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5), 426-439.
- 최자영·김경자(2003). 계획적행동이론을 적용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행동 분석. 『소비자학연구』, 14(4), 89-103.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관광부문 불공정사례 및 개선방안』.
- 황희정·이훈(2011). 공정관광의 개념 분석 이론화를 위한 고찰. 『관광학연구』, 35(7), 77-101.
- 허향진·김태구(2008). HIS 이용의도와 이용행동의 예측과 이해를 위한 비교우위 경쟁이론모형 판별. 『관광학연구』, 32(1), 187-208.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Beckmann (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pp.11-39). New York: Springer-Verlag.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 - 211.
- Ajzen, I. (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1-20.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 Caruana, R., Glozer, S., Crane, A., & McCabe, S. (2014). Tourists' accounts of responsible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46, 115-129.
- Cheng, S., Lam, T., & Hsu, C. H. C. (2005). Testing the sufficien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case of customer satisfaction response in restau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4(4), 475-492.
- Cleverdon, R., & Kalisch, A. (2000). Fair trade in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 171-187.
- Corkhill, M. (2007). *How to be an ethical shopper*. Impact Publishing Ltd.
- Cravatte, C., & Chabloy, N. (2008). Enchantment and solidarity: Which dream does 'fair tourism' sell?. *Tourist Studies*, 8, 231-247.
- Diana, C., & Sargent, A. (2000). Social marketing and sustainable tourism- Is there a match?.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1), 1-14.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Sociology Press.
- Goodwin, H., & Francis, J. (2003). Ethical and responsible tourism: Consumer trends in the UK.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9(3), 271-284.
- Grimwood, B. S., Yudina, O., Muldoon, M., & Qiu, J. (2015). Responsibility in tourism: A discursive analysis. *Annals of Tourism Research*, 50, 22-38.
- Hagger, M. S., & Chatzisantis, N. (2005). First- and higher-order models of attitudes, normative influenc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 513-535.
- Han, H. (2015). Travelers'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a green lodging context: Converging value-belief-norm theor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urism Management*, 47,



- 164-177.
- Han, H., Hsu, L. T., & Sheu, C. (2010).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green hotel choice: Testing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riendly activities. *Tourism Management, 31*(3), 325-334.
- Han, H., & Kim, Y. (2010). An investigation of green hotel customers' decision formation: Developing an extended model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9*, 659-668.
- Han, H., Lee, S. & Lee, C. K. (2011).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Visa exemptions and the traveller decision-making process. *Tourism Geographies, 13*(1), 45 - 74.
- Hsu, C. H. C., & Huang, S. (2012).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for tourists.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36* (3), 390-417.
- Lam, T., & Hsu, C. H. C. (2006). Predicting behavioral intention of choosing a travel destination. *Tourism Management, 27*(4), 589-599.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onely Planet Publication. (2008). *Responsible travel*. Retrieved January 15, 2009, from <http://www.lonelyplanet.com/responsible-travel/overview.cfm>
- Mahony, K. (2007). Certification in the South African tourism industry: The case of fair trade in tourism. *Development Southern Africa, 24*(3), 393- 08.
- Mvula, C. D. (2001). Fair trade in tourism to protected areas: A micro case study of wildlife tourism to South Luangwa National Park, Zambia.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3*, 393-05.
- Patton, M. (1980).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Pavlou, P. A., & Fygenson, M. (2006). Understanding and predicting electronic commerce adoption: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IS Quarterly, 30*(1), 111-145.
- Payne, D., & Dimanche, F. (1996). Towards a code of conduct for the tourism industry: An ethics model.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 997-1007.
- Phillips, W. J. (2009). *Senior casino motivation and gaming intention: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nhattan, Kansas: Kansas State University.
- Quintal, V. A., Lee, J. A., & Soutar, G. N. (2010). Risk, uncertaint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tourism example. *Tourism Management, 31*(6), 797-805.
- Shih, Y. Y., & Fang, K. (2004). The use of a decompos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study internet banking in Taiwan. *Internet Research, 14*(3), 213-223.
- Sparks, B. (2007). Planning a wine tourism vacation? Factors that help to predict tourist behavioural intentions. *Tourism Management, 28*(5), 1180-1192.
- Sparks, B., & Pan, G. W. (2009). Chinese out bound tourists: Understanding their attitudes, constraints and use of information sources. *Tourism Management, 30*(4), 483-494.
- Weeden, C. (2001). Ethical tourism: An op-

- portunity for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8(2),  
141-153.
- Wood, E. H. (2005). Measuring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local authority  
ev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18(1), 37-53.
- Zhang, H. Q., Heung, V. C., & Yan, Y. Q.  
(2009). Play or not to play—An anal-  
ysis of the mechanism of the zero-  
commission Chinese outbound tours  
through a game theory approach.  
*Tourism Management*, 30(3), 366-371.
- 2015년 2월 23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5년 6월 17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5년 6월 22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